이베로아메리카 제9권 2호(2007. 12): 149-172

국가 소설『엘 뻬리끼요 사르니엔또』읽기

배 지 완

<Abstract>

Lectura de una novela nacional : *El Periquillo Sarmiento*

Fernández de Lizardi, hijo de la Constitución de Cadíz, era un apóstol del pueblo mexicano. Cuando se promulgó el decreto de la libertad de imprenta en 1810 y en 1812 en Cadíz de España, se lanzó a sí mismo al periodismo. La libertad de imprenta fue decretada por los cortes liberalistas españolas cuando España fue invadida por La Francia de Napoleón. Cuando la censura y la inquisición de la Monarca Española eran severas y hostiles en la Nueva España, la novela era un género literario muy útil para el Pensador Mexicano. *El Periquillo Sarniento*, la primera novela en America Latina, no es una novela picaresca . La forma y el estilo de la novela procuran ser nuevos, mezclando varios generos literarios y llegan a ser una novela nacional. Su proyecto en la novela es reformar la Nueva España: Independencia de México. Lizardi propone el modelo ideal del hombre mexicano, un burgués sólido y virtuoso y procura el levantamiento de los pueblos mexicanos para la Independencia como Hidalgo y Morelos. La novela latinoamericana, considerado como un género nocivo para los hispanoamericanos y muy restringido por el gobierno español durante tres siglos, empieza a florecer desde la pluma del Pensador Mexicano.

[Key Words: Fernández de Lizardi / *Periquillo Sarniento* / Colonia española]

[주제어: 페르난데스 데 리사르디 / 뻬리끼요 사르니엔또 / 스페인식민지]

Ⅰ. 들어가며

일반적으로 1816년 멕시코에서 출판된 호세 호아낀 페르난데스 데 리사르디(José Joaquín Fernández de Lizardi, 1776-1827)의 『엘 뻬리끼요 사르니엔또, El Periquillo Sarniento』[1]는 많은 비평가들에 의해 중남미의 첫 소설로 평가받는 중요한 작품이다. 또한 19세기 초 스페인식민지시대 말기에 등장한 이 작품은 중남미의 첫 소설이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피카레스크 작품으로 분류되는 작품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소설이 중남미의 첫 소설이며 피카레스크소설이라는 분류는 사실상 수많은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문제이다. 피카레스크소설은 1554년 스페인에서 『라사리요 데 또르메스의 생애, Vida de Lazarillo de Tormes』의 출판을 시작으로 유럽전역에 전파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가장 스페인적인 문학 장르이다. 이 피카레스크소설 양식이 두 작품의 출판년도로 비교하자면 정확히 258년, 무려 3세기라는 오랜 시간차를 두고 유령처럼 중남미의 첫 소설의 형식으로 등장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시기적으로는 이 소설이 출판된 때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이루려는 독립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시기로서 반스페인 정서가 무르익어가던 때가 아닌가? 이러한 시기에 신분상으로서는 독립운동의 주체가 되는 끄리오요계급에 속하며 이미 <엘 뻰사도로 메히까노, El Pensador Mexicano, 1812>라는 신문을 발간하여 멕시코의 민중을 계몽하기위해 노력했던 의식 있는 작가가 선택한 장르가 너무나 스페인 적이면서도 너무나 구시대적인 피카레스크양식이 맞는 것인가? 그러나 이 소설의 구조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소설이 일반적인 피카레스크소설과는 다른 점이 많다. 특히 주제 면에서 살펴보면 피카레스크 소설과는 거리가 멀다. 이 소설의 의미는 페르난데스 데 리사르디가 멕시코 인으로서의 자각에서 출발한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하여 멕시코의 독립을 외치고 국민을 계도하는 한편, 새로운 소설 장르를 만들어 내고자했다. 그는 기존의 여러 소설 양식을 혼합하는 새로운 소설형식을 만들어 내었고 소설을 통해 국가의 독립에 대한 염원을 넘어 국가 통치제도의 문제를 다루는 국가 소설로 만들었다. 본 논문은 먼저 『엘 뻬리끼요 사르니엔또』가 발행되던 시기의 아

1) 본문에서는 페르난데스 데 라사르디(2001), 『뻬리끼요 사르니엔또』,김현철 번역본을 인용했다.

메리카의 정치적 상황을 살펴보고 작품 속에 나타난 페르난데스 데 리사르디의 사상을 읽어봄으로서 장르적인 논쟁을 넘어 멕시코의 국가소설로서 이 작품이 갖는 형식상 내용상의 문제와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스페인의 식민지정책과 첫 중남미소설

중남미는 끄리스또발 꼴론이 1492년 아메리카를 발견한 이후 19세기까지 무려 300년 동안 스페인 제국주의를 투영한 엘도라도 전설의 희생양이 되어왔다. 폐쇄적인 스페인에 의해 통제되던 중남미의 식민화된 상상력은 18세기부터 진행되어 오던 급진적인 유럽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감지하게 된다. 이성을 중심으로 절대 왕정과 귀족 중심의 구제도와 교회를 비판하는 백과사전파의 계몽주의운동과 미국의 독립선언(1776), 프랑스대혁명(1789), 아이티독립(1804), 아르헨티나의 영국함대 격퇴(1806)등은 중남미인들에게는 스페인과 중남미의 관계를 재고하도록 만드는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었다.

페르난데스 데 리사르디는 1776년 11월 15일 멕시코의 중산층 가정의 의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멕시코 대학을 마치고 산 일데폰소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다 아버지의 병환으로 학업을 중지하고 아카폴코(Acapolco)지방의 딱스코(Taxco)에서 판사생활을 하게 된 그는 1810년에 미겔 이달고신부와 모렐로스신부의 선동으로 독립전쟁이 전개되었을 때 반란군에게 거짓투항을 함으로써 왕당파들에 의해 옥고를 치르게 된다. 1811년 감옥에서 나온 그는 1812년에 <엘 뻰사도르 메히까노>라는 신문을 창간했다. 당시 멕시코시티는 17만 명 정도의 거주민이 있었고 당시 다른 식민지 수도들보다 더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문학과 교육, 그리고 저널에 대한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 인쇄는 이미 1539년에 유입되었고 대학은 1553년에 설립되었으며 첫 아메리카 정기간행물의 중심지였다. 기독교의 전파와 교육은 프란체스코파, 도미니크 선교단 그리고 예수회와 같은 기독교단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지적 상황은 지식계층인 크리오요들이 국가의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저널리즘의 경우

이미 1784년에 <가세따 데 메히꼬, Gaceta de México>(1784-1809)가 발간되었고, 1788년 호세 안또니오 데 알사떼 이 라미레스(José Antonio de Alzate y Ramírez)에 의해 <가세따, Gaseta>가 발간된다. 알사떼 이 라미레스는 "우리들은 히스파노 아메리카의 나라에 빛를 던져 주는 사람들의 기사를 실을 것이며, 멕시코는 독자적인 문화, 독자적인 과거, 독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인디오적 이며 동시에 유럽풍이다"라고 기술함으로서 자유사상에 입각한 계몽주의의 영향이 이미 멕시코에 전파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까를로스 푸엔떼스 1997, 291). 이와 함께 <디아리오 데 메히꼬, Diario de México>(1805-12)와 <가세따 데 고비에르노, Gaceta de Gobierno de México>(1810-21)라는 기관지가 발간되고 있어 페르난데스 데 리사르디가 신문을 창간하던 시기에는 저널리스트는 이미 확고한 직업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Benítez-Rojo 1999, 203). 이러한 상황은 당시 멕시코의 발달된 경제수준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독자층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J. R. Spell은 페르난데스 데 리사르디의 작품세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그의 주제는 출판 상황에 따라 시시 때때로 변했다. 1810년과 1811년에 그리고 1814년에서 1820년까지 언론을 봉인하는 상황 속에서 그는 사회적 상황을 공격하는 일에 전념했다. 1812년과 1820년부터 1822년까지는 자유롭게 출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 멕시코 국가가 직면한 복잡한 정치문제에 헌신했다. 1824년에서 1825년 사이에는 교회개혁의 필요성에 주목한다(Carmen Vásquez 1985, 87).

그러면 위에 언급한 1810년부터 1825년까지 약 15년 동안 페르난데스 데 리사르디가 다루었던 주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 시시각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무엇일까? 알려진 바와 같이 1531년 4월 4일 이사벨여왕은 16세기 당시 스페인에는『아마디스』를 비롯한 기사 소설이나 허구를 바탕으로 한 모험 소설이 매우 유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설들이 무익하고 신성 모독적이어서 인디오들에게 좋지 않다고 규정하고 종교적인 내용의 책

외에는 중남미로의 반입을 금지하는 칙령을 내린다.[2] 스페인 정부는 이후 약 300년에 걸쳐 중남미에서의 인쇄출판을 억압하고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의 서적들의 유입도 검열을 통해 통제하는 한편 종교재판을 통해 중남미의 사상을 통제해 왔다. 이러한 상황은 중남미의 문화예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 그런데 1810년과 1812년에 걸쳐 스페인정부는 까디스의 의회에서 1531년 이후 금지되어왔던 식민지에서의 인쇄출판의 자유를 허가하게 되는데 이 사건은 이후 중남미 정치문화 전반에 걸친 대변혁의 불씨가 된다.

그렇다면 인쇄출판의 자유를 허용했던 1810년에 이루어진 스페인의 식민지 정책의 변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프랑스에 의해 식민지화된 스페인정부의 정치적 위기 때문이었다. 1808년 스페인에서는 무능한 왕 까를로스 4세에 대항하는 무리들이 왕자인 페르난도 7세를 왕으로 옹립하는 쿠데타가 일어난다. 이러한 혼란을 틈타 프랑스의 계몽군주 나폴레옹은 1808년 스페인을 침공하여 스페인의 두 왕, 까를로스 4세와 새로 옹립된 페르난도 7세 부자를 프랑스의 인질로 끌고 간다. 이들과 함께 까를로스 4세의 부인으로서 라 파르메사나(La Parmesana)라고 불리던 색광의 왕비 마리아 루이사와 그의 연인이자 스페인의 부패를 이끌었던 재상 마누엘 고도이도 인질로 끌어간다. 스페인의 왕 페르난도 7세가 1808년부터 1814년까지 프랑스에 억류되어 있는 동안 계몽주의 국가 프랑스는 스페인 자유주의자들과 함께 스페인에 자유헌법을 제정하고 종교재판과 내국세의 벽을 폐지했으며, 봉건제도의 귀족들과 교회의 많은 특권을 박탈하고 인권을 선언했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술을 많이 마셔서 뻬뻬 보떼야(Pepe Botella)라고 불리는 자신의 형 조제프를 스페인의 왕으로 즉위시킨다. 이렇게 프랑스의 두 보나파르트형제는 절대왕정에서 탄압을 받던 스페인의 자유계몽주의자들과 함께 스페인을 근대국가를 만들고자하는 대사업을

2) (Jean Franco 1985, 19) 아사벨여왕은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칼 5세이자 스페인왕 까를로스 1세의 부인으로서 포루투갈 왕 마누엘의 딸이자 까를로스 1세의 사촌이었다. 남편인 까를로스 1세는 스페인을 통치하는 약 40년 동안(1516-1556) 약 16년만을 스페인에 머물렀으며 이 기간 동안에도 끊임없는 외유가 이루어져 이 스페인의 첫 합스부르크군주는 부재왕이었다. 스페인의 통치문제는 1526년 두 사람의 혼인으로 해결되어 1539년 이사벨여왕이 사망할 때까지 왕의 부재시 스페인을 통치했다. 존 H. 엘리엇은 이사벨 여왕을 “위엄있는 여장부이며 거의 완벽한 왕후”로 기술하고 있다.(엘리엇 2003, 179-182)

벌렸으며 스페인은 친불파와 항불파의 대립적 혼란 속에 빠지며 스페인 자신의 독립을 위한 싸움에 전념하게 된다(까를로스 푸엔떼스 1997, 271). 이러한 상황은 당연히 중남미에 대한 본국의 간섭의 약화를 초래했으며 동시에 프랑스계몽주의 영향과 국제정세의 변화를 통해 지난 세기부터 무르익어 온 독립에 대한 열망을 구체화 시키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스페인 본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멕시코의 미겔 이달고 이 꼬스띠야 신부는 1810년 9월 15일 밤 "돌로레스의 외침(Grito de Dolores)" 으로 불리는 독립을 위한 민중봉기를 펼치다 1811년 교수형을 당하고, 그의 뒤를 이어 메스티소신부인 호세 마리아 모렐로스 신부가 민중과 함께 식민정부에 대항하여 전쟁을 벌이게 된다. 이 사건은 스페인정부에 영향을 끼쳐 1810년 9월과 1812년 3월에 까디스에서 제정된 신헌법에 인쇄출판의 자유를 포함시키도록 했지만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실제로는 스페인식민정부가 이 법령을 1812년 10월 5일부터 겨우 두 달간만 발효한 후 12월에 폐지하였다(Reynaldo Sordo 2004, 138). 1812년 10월 인쇄출판의 자유가 실효되자 페르난데스 데 라사르디는 자신의 첫 신문을 출판하지만 반정부행위를 한 신부들을 체포한 사실을 비판하는 글을 실었다가 스페인식민정부의 검열에 걸려 옥고(1812년 12월-1813년 6월)를 치루게 된다. 1814년 3월 프랑스의 억류에서 돌아온 페르난도 7세는 자유주의 헌법을 인정하지 않고 더욱 강력한 전제정치를 펼치고 자유계몽주의를 탄압하는데, 1814년 페르난도 7세의 복위는 중남미로서는 문화적 암흑기로의 복귀를 의미했다. 이 불우한 멕시코 작가는 <엘 뻰사도르 메히까노>신문을 발간 첫 해인 1812년부터 1813년, 1814년에 걸쳐 해마다 감옥을 오가며 가능한 상황마다 산발적으로 신문을 발간하다가, 교회를 비판하는 글 때문에 1814년 12월 복원된 종교재판에 회부되어 옥고를 치룬다. 출옥 후 1815년 새로이 <알마세나 데 프리올레라스, Almacena de Frioleras>와 팜플렛 <까손씨또 데 라 알마세나, Calxoncito de la Almacena>를 시리즈물로 출간한다. 페르난도 7세의 복위로 출판 상황이 더 어려워지자 1816년 사상을 피력할 수 있는 공간으로 소설장르를 선택하고 『엘 삐리끼요 사르니엔또』를 출판한다(Luis Iñigo Madrigal 1987, 139). 스페인의 페르난도 7세는 1820년 리에고가 반란을 일으키자 다시 유폐되고 중남미는 다시 자유를 획득한다. 1823년 또 다시 복위한 페르난도 7세는 더욱 포악한 전제정치를 펼치다 1833년 사망하면서 불과 3살

된 어린 딸 이사벨 2세에게 왕위를 양도하게 된다.[3] 한편, 멕시코에서 인쇄출판의 자유가 1920년 5월 30일에 다시 실효되자 페르난데스 데 리사르디는 자신의 천직인 신문으로 돌아가 신문을 발행하며 사회 계몽운동을 전개하고, 멕시코는 1821년 스페인사령관이었던 이뚜르비데에 의해 독립을 얻게 된다.

2. 식민화된 상상력의 독립과 첫 소설의 장르의 문제

정경원의『라틴 아메리카 문학사』에서는『엘 베리끼요 사르니엔또』1(816)를 중남미 최초의 소설로 언급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중남미 소설의 부재의 원인으로 첫째, 1531년의 이사벨여왕의 소설반입금지 칙령과 칙령준수를 위한 신대륙에서 출판제한, 둘째, 정보전달에 목적을 둔 교훈적 혹은 교육적인 식민지 문학의 성격, 셋째, 본래 문학 양식으로서의 소설은 유럽에서 봉건시대이후 도시의 탄생과 부르주아 계층의 독자의 참여를 배경으로 하여 뒤늦게 발생한 장르(정경원 2001, 195)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스페인식민지 시절에도 소설형태가 존재하고 있었다. 세도밀 고이치(Cedomil Goíc)은 자신의 책에서 식민지시대의 중남미 소설들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으며[4] 콜롬비아에서는 중남미의 첫 소설로 콜롬비아의 뻬드로 솔리스 이 발렌수엘라(1624-1711)의『경이로운 사막과 사막의 경이, El desierto prodigioso y prodigio del desierto』가 거론이 되기도 한다. 이 소설은 17C 중엽에 쓰인 종교를 주제로 하는 바로크 작품으로 시와 산문, 드라마, 꾸며진 이야기, 단편소설로 구분될 수 있는 이야기가 포함된다. 그러나 안또니오 베니떼스 로호(Antonio Benítez-Rojo)의 경우『엘 베리끼요 사르니엔또』를 중남미의 첫 소설로 평가하면서 이전에 쓰여진 소설들은 다음과 같은 예에 해당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중남미의 첫 소설로

3) 페르난도 7세가 1833년 3살 된 어린 딸 이사벨 2세에게 왕위를 양도하게 됨으로써 스페인은 왕비 마리아 끄리스띠나의 섭정과 까를로스 왕위계승전쟁, 내전과 정치적 갈등과 암투 등으로 점철되는 등, 걷잡을 수 없는 정치적 소용돌이 속으로 빠지게 된다. 1868년 혁명으로 퇴위하고 세라노 장군의 임시정부(1868-1870), 아마데보 데 사보야(1870-1873)왕의 추대와 자진 퇴위를 거쳐 1873년 2월 11일 제 1공화국이 탄생한다. (박철 97-99)

4) (Cedomil Goíc 1982, 369-406) 그가 언급하는 소설작품은 출판지가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각국에 흩어져 있다. 괄호안은 출판지이다. Claribalte(발레시아 1519), Siglo de oro(Madrid 1607), Historia tragicómica de don Enrique de Castro(Paris 1617), etc.

지목될 수가 없다고 설명한다.

> (1) 허구적 이야기로 쓰이지 않거나 서사성이 부족한 경우
> (2) (1)번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외국인에 의해 쓰였거나 유럽에서 출판된 경우
> (3) 중남미에서 태어난 작가에 의해 쓰였더라도 주제가 가톨릭을 방어하거나 찬양하는 경우
> (4) 일반적으로 작가들이 자연스런 장치, 집단, 지역, 전통 혹은 경제, 사회, 정치, 민족의 풍속이나 일상적 배경이 중남미와 깊이 있게 언급하려는 목적을 두지 않은 경우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멕시코나 페루, 콜롬비아 각국의 소설 같은 국가적 소설로서나 적어도 중남미 소설로조차 읽히지 않은 경우(Benitez-Rojo 1995, 200)

위의 분류를 근거로 호아낀 로이(Joaquín Roy)는 "『엘 뻬리끼요 사르니엔또』는 작가를 둘러싼 세계에 대하여 사실대로 언급하고 있는 작가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모든 사상의 종합이며 뛰어난 요약"으로 평가한다. 이 소설은 당시 식민지의 사상 통제 내에서 작가 자신을 수차례에 걸쳐 옥에 가두게 만들었던 불가능한 저널리즘의 대체물로서 그가 살아야만 했던 사회에 대한 비평적 인물이 필요했기에 탄생한 것이다. 작품 속에서 페르난데스 데 리사르디는 자국의 국민들끼리 피를 흘리는 전쟁이라는 무모한 혁명적 방법으로 모든 구조가 변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서도(그렇다 할지라도 당시로서는 아마도 직접적인 표현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리라 판단된다), 국가 체제가 완벽해지기를 갈망한다. 호아낀 로이는 식민지의 연대기가 이야기의 전례로 평가된다면 페르난데스 데 리사르디의 작품 속에서 비평들은 사르미엔또나 곤살레스 쁘라다, 그리고 호세 마르띠의 체계를 앞서 있으며, 19세기 문학사에서 굳게 다져지게 될 풍속주의자와 고발자의 사이에 있는 이러한 수필의 선례가 된다고 주장한다(Carmen Vasquez 1985, 89).

하비에르 산체스 사빠떼로는 까르멘 루이스 바리오누에보의 말을 들어 이 소설이 피카레스크소설과 공통된 부분이 있지만 일반적인 장르의 특성과는 매우 거리가 있으며 오히려 19세기 당시의 소설 형태를 절충하고 혼종적인 텍스트로 규정한다. 이와 함께 이 작품의 장르규정의 문제는 이 소설이 작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전례가 없었고 이 작품을 포함할 수 있는 국가의 문학적

전통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그 근거로 1인칭으로 서술괴는 피카레스크소설에서처럼 1인칭으로만 써지지 않음으로써 소설의 구조가 닫힌 구조라는 점과 인물이 운명결정론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삐까로적 특성이 드러나는 부분은 제 3장에 한정된다고 말한다(Sánchez Zapatero 2006). 사실상 페르난데스 데 리사르디가 그의 신문을 출간하다 옥고를 치루고 난 뒤에 쓴 이 소설의 목적은 기존의 피카레스크 소설에서 보여주는 단순한 사회비판이나 풍자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작가는 작품 속에서 실제의 지명을 사용하고 있고 뻬리끼요가 다양한 직업군(학생, 수도사, 이발사, 서기, 약사, 판사, 군인, 거지, 도둑, 상인 등의)을 경험함으로써 벌어지는 일들이 당시 독자인 멕시코 인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각 직업에 대한 인상들과 문제점을 쉽게 연관 지어 볼 수 있을 만큼 사실주의 소설와 풍속주의 소설의 특징을 갖고 있다. 멕시코 국민들이 독립에 대한 열망으로 피를 흘릴 때 멕시코의 출판의 자유를 부르짖었던 이 멕시코 작가 역시 당시의 많은 작가들처럼 중남미의 사상적 문학적 독립을 꿈꾸지 않았겠는가? 따라서 베니떼스 로호는 이 작품의 국가주의적 역할의 중요성을 높이 사야한다고 주장한다(Benitez-Rojo 1999, 209).

바르고 신앙심 깊은 중류가정에서 태어난 백인혈통의 끄리오요인 뻬리끼요는 당시로선 드문 대학 교육을 받고 학사모를 썼지만 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그는 중남미에서 태어났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개인적인 능력과 상관없이 귀족이나 부자들을 섬겨야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끄리오요의 전형이다. 주인공 뻬리끼요는 스페인부왕이 통치하는 식민지 말기 시대의 상황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전달하면서 멕시코의 독립의 당위성을 설파하며, 국민의 이상을 제시하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주인공이 살아가는 공간은 통제 불가능한 폐단들로 얼룩져있는 스페인 식민지, 누에바 에스빠냐의 사회이다. 이러한 공간 속에서 주인공에게 영웅적인 모습을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뻬리끼요의 악행은 부패한 사회 속에서 살아 가기위한 생존 전략이며, 멕시코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악행의 일부분일 뿐이다. 뻬리끼요는 자신이 존재하는 사회와 국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가의 독립사상을 고취시키며 멕시코 국민들이 갖추어야할 미덕을 계몽하고자 하는 매우 혁명적이고 정치적인 인물이다. 주인공의 악행이 다른 인물들과 차별되지 않으면서 사회전복을 추

구하는 인물의 특징은 뻬리끼요가 악자소설의 주인공인 삐까로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든다.

흔히 이 소설이 스페인의 피카레스크 소설에 속하며, 특히 긴 설교부분으로 인해 스페인의 『구스만 데 알파라체』와 프랑스 작가 르사쥬(Lesage)의 『질 브라스, Gil Blas』[5]를 모방한 소설로 판단한다. 그러나 이 소설이 피카레스크 양식을 따랐는가하는 점은 비평가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만약에 이 소설이 피카레스크양식을 따랐다면 적어도 16세기와 17세기에 스페인에서 유행하던 스페인풍의 피카레스크 소설형식은 아니며 18세기 프랑스에서 유행하던 피카레스크 양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소설은 피카레스크 소설이 아니다. 첫째, 당시 치열하게 독립전쟁을 하고 있는 시대적 환경이나 작가의 반 스페인정서는 스페인으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강렬하게 원하는 탈 스페인정서이기 때문이다. 또한 18세기 이후 프랑스의 자유계몽주의 사상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으며, 중남미에서 19세기 독립 전후의 작가들은 자신들의 정신적 조국을 프랑스로 생각하였고, 따라서 프랑스 작가들의 영향을 받은 작품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둘째, 작품 전체를 통하여 표출되고 있는 그리스 로마시대부터 지금까지의 문학이론과 경향에 대한 비판은 작가가 본문에서 직접 밝혔듯이 새로운 형식의 글을 쓰고자하는 작가의 글쓰기 의도와 크게 상치되기 때문이다. 셋째, 앞의 두 작품이 풍자와 비판 그리고 재미를 위해 허구화된 소설이라는 점도 멕시코 작가의 사실주의적 경향과 크게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예를 들면 이 멕시코 소설에서는 총독의 조카의 살인 사건(I-p.22)이나 1810년의 독립전쟁에 대한 언급(II-p.495)과 같이, 당시 멕시코가 당면한 역사적인 사건과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5) 『질 브라스』는 각각 1715년(1부)과 1724년(2부), 그리고 1735년(3부), 3차례로 나뉘어 출판된다. 이 작품은 스페인의 지리적 역사적 배경을 그대로 차용했으며 역사적 실존 인물들의 이름을 그대로 차용한다. 그러나 살라망까같은 지역이 등장하더라도 구체적인 묘사는 주어지지 않는다. 여분의 인생으로 한평생 떠돌아다니는 스페인 삐까로와 달리 질 브라스는 낙천적인 성격을 지닌 18세기 프랑스사회를 대표하는 인물로 순진하고 선량한 본성을 바탕으로 귀족계급과 부르주아계급의 가치의 갈등 속에 물질적 성공을 바탕으로 프랑스 시민으로 무사히 정착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프랑스에는 일찍이 스페인 피카레스크 소설이 전해졌으나 국가 사회적 환경과 정서가 달랐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문학 장르를 달리 구분했기 때문에 18세기에 들어서야 피카레스크소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곽광자 1998, 323-334)

저널리즘과 혼합되는 양식을 보여준다. 넷째 뻬리끼요는 삐가로가 아니다. 그는 스페인의 삐가로나 질 브라스와 태생적으로 다르다. 삐까로들은 근본적으로 신분적인 원죄(사생아, 유태인 등)를 가지고 태어나며 사회적으로 낙오자이며 소외계층이었다. 스페인의 삐까로들은 몰락해 가는 국가와 사회에서 타락한 도덕에 대한 환멸을 가지고 있으며 기독교적인 도덕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뻬리끼요는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태어났으며 도덕신과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중류가정 출신이다. 그의 악행은 다른 등장인물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에 만연된 부패뿐이며 그는 사회개혁을 넘어 정치적인 개혁을 꿈꾸고 있다. 이러한 국가체제의 전복을 꿈꾸는 정치적인 특성은 스페인 피카레스크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알리시아 야레나(Alicia LLarera)는 피카레스크적인 요소가 리사르디에서 새로운 형태와 새로운 해석으로 확장되었다고 보았지만 앙헬 에스떼베스 몰리네로(Angel Estévez Molinero)는 리사르디의 개혁 사상들이 피카레스크사고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뻬리끼요가 악당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몰리네르는 이 소설이 악당을 등장시킨 소설은 될 수 있지만 피카레스크소설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6)]

독립전후의 중남미인들에게 사상적 조국이었던 프랑스 계몽사상가들은 문학이 사상 전파에 매우 뚜렷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다양한 장르의 문학 텍스트를 자신들의 사상을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했다. 이러한 그들의 욕구는 편지, 사전, 철학적 콩트 등의 새로운 문학 양식을 창조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소설은 그들의 주장을 전개하는 데 중요한 장르로 대두하게 되는 데 이 같은 현상은 계몽주의 시대에 처음으로 나타난 새로운 변화이다. 유석호는 "계몽사상가들이 인쇄매체 그 중에서도 특히 소설책에 주목하게 된 것은 본격적인 사상서보다 일반 대중들에게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지식을 전파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다. 그것은 다른 문학 장르들, 시나 극과 비교해보더라도 소설이 그만큼 대중적 장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한다(유석호 2003, 195). 따라서 당시 프랑스에서는 몽테스키외의『페르시아인의 편지』

6) (권미선 2004, 125) 권미선의 논문에서는『엘 뻬리끼요 사르니엔또』가 세르반테스와 피카레스크소설의 모방으로 본다.

(1721)로부터 루소의 『신 엘로이즈』(1761)에 이르기까지 소설은 종래에는 볼 수 없었던 철학적 위상을 확보하게 된다(ibid 194).

프랑스 계몽주의에 영향을 받은 페르난도 데 리사르디에게 소설은 자신의 사상을 전파하는 수단이었다. 신문발행인인 그가 수차례에 걸친 옥고 끝에 신문의 대안으로 선택한 장르가 소설이었기 때문이다. 『뻬리끼요 사르니엔또』의 형식은 비평가들의 논란거리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작가의 예술에 대한 생각과 서사스타일을 특징짓는 도덕적인 의도는 계몽주의적이면서도 새로 탄생하는 국가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소설을 창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소설 속에서 보여주는 저널리즘 스타일, 풍속주의, 교훈주의, 멜로드라마 등의 혼합한 소설 양식은 멕시코의 다른 작가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작가는 자신의 소설형식이 기존의 작가들의 방식을 다르지 않았으며 자신만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대목에서 작품을 쓰기위해 형식적인 독창성에 대해 고심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내가 글을 쓰는 방식과 형식은 내 나름대로의 것이며 최대한 편하게 작업을 했다. 설득력이 강한 것이 가장 훌륭한 웅변이라는 것과, 자기가 하는 일에 가장 적절하게 들어맞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p.10)

국가 소설을 만들고자하는 그의 문학적 야심은 그리스로마시대의 고전부터 시작하여 계몽주의 작품까지 시와 소설, 그리고 다양한 사상과 문학규범들에 대한 논쟁에 작품의 많은 부분들이 할애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다. 또한 그 가운데 소르 후아나 이네스 데 라 꾸르스(Sor Juana Inés de la Cruz)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멕시코의 문화적 자존심을 고양시키려하는 점도 이러한 확신을 가능하게 한다.

> 소르 후아나 이네스 데 라 꾸르스 수녀에게도 같은 운을 주어 시를 짓게 했답니다. 성 제롬을 따르는 신실한 성녀요, 천재요, 당대 최고의 시인으로 아폴로의 열 번째 뮤즈라는 칭호를 받았던 수녀님에게 말입니다. 그러나 이 수녀님은 시를 짓지 못했습니다. 수녀님은 4행시를 지어 그 벌충을 했고, 우리 시인의 뛰어난 기지를 높이 평가했습니다.(II-61)

이와는 대조적으로 소설 속에서 종종 세르반테스와 돈 끼호테, 그리고 산초라는 이름이 등장하며, 소설 돈 끼호떼의 장면이 작품 속 장면에서 상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의 작품에서 돈끼호떼나 세르반테스의 등장은 작품과 작가의 위대함에 대한 예찬이 아니라 무능하고 타락한 스페인에 대한 조롱과 풍자의 일부분이다. 세르반테스에 대한 평가절하는 비예가스의 평가를 인용하는 간접적인 방법이다.

> 그 위대한 세르반테스는 진짜 천재였다. 그러나 시인으로서는 운이 없었지. 그가 쓴 산문은 불멸의 명성을 안겨주었지만(그 뿐만 아니라 돈도 안겨주었지만 그래도 그는 동냥질이나 하다 죽었다. 작가라는 작자들이 다 그 꼴이지) 그 사람의 시니 특히 희곡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 그의 위대한 작품 돈끼호테도 그 형편없는 시인을 난도질하는 데 충분한 방패막이 되진 못했다. 비예가스는 그의 일곱 번째 애가에서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단다.
>
> 시의 낙원을 정복하기란
> 못난이 시인 세르반테스보다 나으리니
> 돈 끼호테를 썼어도 무슨 소용.(I-135)

이 장면속에서 뻬리끼요는 중남미의 돈 끼호떼이다. 주인공의 행동은 스페인의 유명한 소설의 주인공과 지속적으로 비교되는데 그의 돈끼호떼와 같은 엉뚱한 행각의 절정은 필리핀에서 유형생활을 마치고 멕시코로 귀국하는 배에서 보여준다. 자신의 환상속에 빠진 뻬리끼요는 돈 끼호떼가 되어 자신의 모은 돈으로 고국에서 귀족이 되는 상상을 하며 마침내 상상속에서 총독자리에 까지 올라 마치 실제로 자신이 총독인 양 행세를 한다.

> 총독한테 그런 인간들이 뭐가 필요하겠어? 내가 총독에 오르는 날 지금은 나를 멀리했던 인간들이 나한테 먼저 아부하려고 서로 수염을 쥐어잡고 싸우겠지? 그렇게 새로운 돈끼호떼는 광기어린 기사담을 마음껏 펼쳤으며 그러한 상상의 날개는 하루, 하루, 순간, 순간 갈수록 심해졌다.[7]

7) 인용된 모든 밑줄은 필자의 강조임

돈 끼호떼는 몰락한 기사가 자신인 양 상상하고 행동하다가 소설이 끝남과 함께 죽음으로서 현실에서는 패배한다. 그러나 멕시코의 돈끼호떼인 뻬리끼요는 멕시코에 돌아 온 후 환상에서 깨어나 사회가 원하는 성실한 시민 뻬드로 사르미엔또로 거듭난다. 이성을 가진 성실한 시민으로 개과천선한 그는 이제 더 이상 스페인의 돈끼호떼가 아니며 멕시코의 뻬드로 사르미엔또인 것이다. 성실로서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선행을 실천하고 행복한 가정을 누리다가 삶을 마치는 주인공은 우리 사회에는 뻬리끼요의 삶처럼 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반복하지 말라며 자전적인 소설을 남기고 사망한다. 작품 속에서 작가는 이 이야기가 작가 자신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뻬드로 사르미엔또가 경험을 적은 이야기를 건네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럼으로써 이 소설 속의 내용에 대한 책임을 비껴가려고 한다. 그러나 작가가 쓴 소설의 흑인노예제도의 부당성에 관해 언급한 부분은 검열을 통과하지 못해 출판이 금지되기도 했다. 페르난데스 데 리사르디는 작품 속에 자신을 등장시키며 뻬리끼요의 입을 통해서 자신이 시대적으로는 암담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운이 없는 글쟁이라며 식민지시대의 작가로서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 나는 우연한 기회에 리사르디라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었다. 카를로스의 견진 성사 때 대부를 섰던 사람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운이 없는 글쟁이였다. 이런 암담한 시절에 글을 쓰자니 필명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필명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멕시코의 생각하는 사람'이 그 양반 필명이었다.(II-p.478)

국가의 독립사상 고취와 사회제도, 그리고 풍속과 문화 사상등 사회전반에 관한 심각한 문제를 다루면서도 일견 피카레스크소설로 보일 정도로 희극적인 요소들도 많이 첨가된다. 그의 신문처럼 그의 소설이 철저히 대중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작품의 의도가 멕시코의 개혁과 민중의 계몽이었기에 많은 독자들이 쉽게 작품에 접근하기위해 농담이나 익살 등의 사용과 저속한 계층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했는데 당대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음을 2부의 서문에서 만물박사와의 대화를 통해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작가는 민중들에게 윤리와 도덕을 계몽하려는 자신의 의도를 성취하려면 소설은 먼저 아주 쉬우면서도 재미있어야한다는 문학관을 강력히 피력한다.

> 고인이 인생 내력을 적어간 방식에서도 상스럽거나 우쭐거리는 듯한 기색은 없습니다. (...)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자 해서인지 시중에서 떠도는 농담이나 속담도 빠뜨리지 않고 이용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쓰자는 의도였겠지요. 때로는 익살을 부리기도 했는데, 아마도 너무 심각한 글이 되지 않을까 염려해서였을 겁니다. 심각하다 보면 지겨워지겠지요.
>
> 부인의 부군은 사람들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것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이런 종류의 책은, 도덕군자들의 탁상공론만 다루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많이 읽히지 못합니다. 그와 반대로, 독특한 방식으로 써진 글에는 독자들이 많게 마련입니다. 이런 유의 책은 영악한 소년, 방탕한 젊은이, 멋쟁이 처녀들 손에서 떨어질 줄 모릅니다. 심지어 망나니 날건달들조차 매달립니다. (...) 그러나 알게 모르게 얼마간의 도덕적 훈계를 섭취하게 되는 것이지요. (II-p.502-503)

3. 멕시코 국가소설의 탄생

스페인식민지사회인 멕시코는 부왕자리부터 하층관리까지 모든 자리는 능력과 상관없이 돈과 아첨으로 매관매직이 가능한 사회이고, 이러한 관리들은 무능과 게으름과 부패한 행정을 펼치며 돈 없는 끄리오요나, 인디오와 흑인 등의 민중들은 이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수탈을 당하는 사회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주인공은 아무런 비판 없이 자신의 주인들의 부패에 참여하며, 자신의 주인들에 대한 자신의 악행에 대하여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사회 곳곳에 불의가 만연해 있으며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사회적 성공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불평등한 식민지 사회구조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이 시대에는 일신의 안락만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자만 양산할 뿐이다.

> 주님 덕에 그 뒤를 이어 지금 우리 사는 황금이 날리는 시대, 계몽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라! 귀족은 귀족, 상놈은 상놈, 부자는 부자, 가난뱅이는 가난뱅이가 확연히 구분되는 세상! 일이나 예술이나 학문이나 농사나 가난 따위야 상놈 비렁뱅이 몫이지. 우리야 시내에 살면서 마차나 굴리고, 나들이옷이나 차려입고, 하인이나 부리면 그만.(II-p.329-330)

가난한 끄리오요인 뻬리끼요는 필리핀에서 약간의 돈을 벌게 되었을 때, 자신의 돈으로 귀족이 될 꿈을 꾼다. 귀족이 되면 놀면서도 하인들의 노동의 착취를 통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의 상상의 절정은 자신의 부를 이용해 식민지총독의 자리에 오르는 상상이다. 스페인식 민지정부의 부패한 모습은 뻬리끼요가 약간의 경제적인 부를 성취한 이후에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는 모습을 통해 나타난다.

> 그 돈으로 마드리드로 달려가 백작이나 후작의 지위를 사지 못할 이유도 없겠지? 나는 돈을 조금만 쓰고도 작위를 산 사람을 분명히 많이 알고 있었다. 좋다. 백작이나 후작이라는 작위를 갖고도 장사꾼 노릇을 하면 쪽팔리는 일일 것이다. 사람들은 나를 알레핀 후작이나 무셀리나 백작으로 불러야지. 그렇게 한다고 대수리오. 이 같은 사닥다리를 타고 작위를 얻고 최정상에 오른 놈들이 어디 한 둘인가?(II-p.265-266)

타락한 사회의 모습은 귀족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이교도들에 대한 선교라는 성전의 기치아래 스페인이 정복의 정당성을 부여받았던 신세계의 기독교는 타락하고 세속적인 신부들로 인해 사회에서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그저 민중의 삶에 아주 가까운 곳에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순진하고 가난한 민중들을 갈취하는 또 다른 지배계층일 뿐이다.

> 신부나 보좌신부가 무식하거나 비윤리적이면 사람들은 고생이 심하단다. 무지하고 태만한 양치기 밑에서라면 양들은 안전할 수 없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도 없는 것과 같단다.(I-146)

이들의 타락한 모습은 선한 원주민들과 흑인들과 대조를 이룬다. 스페인에서 건너온 신부(기독교)들보다 원주민(이교도)들이 더 선한 양심의 소유자로 등장한다. 식민지 사회에서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이들에 대하여 선입견과 편견을 제거하고 그들의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묘사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는 작가의 주장은 새로운 독립국가를 구성할 멕시코에 이들을 국민으로서 수용하는 작가의 태도를 볼 수 있다. 피부색이 중요한 차별 요소였던 당시에 이러한 작가의 계몽주의자로서의 태도는 이후 19세기에 이상적인 국가의 모델을 제시했던 사르니엔또와 같은 동시대의 정치 사상가들과 큰 대조를 보

인다. 이러한 작가의 태도는 “선한 야만인”으로서 인디오들을 이국주의의 대상으로서 미화하거나 독립된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악의 대상으로서 이중적으로 평가했던 사상과는 다르게 페르난데스 데 리사르디는 이들을 똑 같이 이성적인 존재로 파악했을 뿐 만 아니라, 오히려 더 뛰어난 덕을 지닌 인물들로 묘사함으로써 이들 역시 멕시코 국민임을 적극 인정하고 있다.

병든 사회의 타락한 주인공이 등장하는 이 작품의 의도는 사회개혁과 멕시코의 독립이다. 사회의 부패는 부조리한 식민지 정책의 결과이다. 멕시코의 독립의 정당성은 주인공이 경험하는 사회 각 계층과 인물들의 모습에서 사회체계의 개혁의 필요성을 획득함으로서 얻어진다. 뻬리끼요는 식민지시대의 산물이다. 스페인식민정부의 중남미인에 대한 차별 정책이 뻬리끼요같은 인물을 탄생시키는 결정적 요인이기 때문이다. 스페인의 혈통이기는 해도 중남미태생이며, 귀족도 아니고 재산을 가지지 못한 끄리오요들은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차별을 받아왔으며 귀족이나 부자들 밑에서 삶을 영위해야했다. 이러한 식민지제도의 불합리성은 끄리오요들의 불만을 야기시켰으며 독립의 불씨가 된다. 작가는 대령을 입을 빌어 끄리오요들이 식민사회에서는 의붓자식과 같은 취급을 받아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에서도 자신을 포기하면 안 되며 각 국민들은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이 있음을 강조한다.

> 사실 조국은 자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의붓자식 취급한다. 국민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정치적 이유를 제외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동포들이 은혜를 베풀어도 자기 잘못 때문에 고생한다는 점을 자네는 인정해야 해. (.....) 그걸 자네 조국이나 동포들의 사악한 심보탓으로 돌이면 안 되는 거야. 자네 짓거리와 불량한 친구들을 탓해야지.(Ⅱ-p.259)

미래의 멕시코와 멕시코 민중에 대한 작가의 태도는 매우 긍정적이다. 병든 사회의 상징적인 인물 뻬리끼요 사르니엔또(옴쟁이 앵무새 새끼)는 본래 바르고 선한 백인혈통의 가정에서 사랑스러운 아들 뻬드로 사르미엔또로 태어났다. 그런 그가 부패한 사회제도의 첫 경험의 장소인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학생지도가 엉망인 학교체계와 교사들을 통하여 뻬리끼요 사르니엔또로 타락하기

시작한다. 인생유전을 경험하고 필리핀으로 유형생활까지 가는 그가 대령을 통하여 감화를 받고 신앙심이 깊고 경제적인 기반을 갖춘 뻬드로 사르미엔또(성실한 부르주아)로 재탄생한다. 작품의 후반부에서 거짓말과 도적질, 사기, 도박, 유흥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며, 부패한 주인들에게 기생하면서 살아가던 뻬리끼요와 그의 친구들은 회개를 통해 착하고 성실한 시민으로 거듭난다. 등장인물들의 삶의 변화는 개인적인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작가에게 개개인의 성실한 삶은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매우 중요한 일로 평가된다.

> 중요한 것은 자식들이 게으름뱅이 백수건달이 되지 않고 자신과 이 나라에 이바지하게 되는 것임을, 무위도식하며 이 사회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임을 나는 잘 알고 있단다. 학문만이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님도 알고 있다. 당당하게 밥벌이할 수 있는 다른 자유로운 직업과 기술직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I-p.132)

멕시코 사회의 흐름속에 자신을 맡긴 채 부유하던 뻬리끼요는 부패한 판사와 신부의 농간으로 죄를 혼자 뒤집어쓰고 재판에 회부되어 필리핀 마닐라 의용군으로 8년간 복역하게 된다. 그러나 멕시코를 떠나 필리핀과 중국에서의 경험은 뻬리끼요가 새사람으로 재탄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특히 정신적 육체적 고아인 그에게 군대에서 모시던 상관인 대령은 인생과 사회에 대해 교육하는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 대령은 뻬리끼요에게 국가의 중요성과 독립의 필요성을 역설함으로서 주인공이 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작가는 대령의 입을 통하여 작품에서 끊임없이 스페인과 멕시코(아메리카)를 분리하면서 멕시코의 현실을 국제관계에서부터 국내문제까지 자세히 진단함으로써 독립의 필요성을 설파한다. 다음 대목은 중남미나 다른 식민지국가들이 유럽 제국주의로부터 경제적 수탈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

> 금광이나 은광 하나 없이도 부를 누리는 나라들은 과거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아. 아메리카 여러 나라에서 가져간 것을 자기 나라 공장에서 가공해 부를 쌓는단 말이지. 영국・네덜란드, 아시아의 몇 나라가 이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우리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는 자기 보물을 유럽・아시아・아프리카에서 탕진하고 있는 꼴이야. 정말 한심한 형편이야.(II-p.231)

민중 속에 만연해 있는 아메리카와 멕시코의 가난은 스페인의 식민제도에서 기인한다. 아메리카가 스페인이 필요한 금을 조달하는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는 현실은 스페인과 중남미 양측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한다. 스페인은 아메리카 식민지에 의존하는 경제 정책으로 자국의 경제적 몰락을 초래하였고 아메리카는 낙후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은 양국에게 이로운 것이 아니다. 작가는 아메리카의 불행은 풍부한 금에서 시작되었다고 판단하여, 차라리 금광이 고갈되는 날이 아메리카가 행복하게 될 것으로 주장한다. 그러면 금을 찾아왔던 스페인사람들이 떠날 것이며 풍요로운 아메리카 땅을 근간으로 멕시코인에 의한 멕시코의 발전은 멕시코를 세계중심의 풍요롭고 행복한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작가는 '우리'와 아메리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끊임없이 스페인/이방/세계 등과 멕시코/아메리카를 분리하면서 멕시코의 국가주의의식과 국민의 자주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아메리카의 자연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에 대한 강조는 멕시코인들에게 국토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함과 동시에 독립의 당위성을 느끼도록 만들고 있다.

> 아메리카에 있는 식민지만 그런 것은 아니야. 에스파냐 자체가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고 있지. 많은 정치인들이 에스파냐의 산업 • 농업 • 국민성 • 인구 • 상업의 몰락을 식민지에서 들여온 부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물론 나는 사실이라고 믿는다), 내 장담하거니와, 아메리카 금은 광산의 씨가 마르면 아메리카는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농사에 뛰어들 것이고, 지금처럼 그 넓은 땅이 미개간인 채로 남아 있지 않고 기름진 옥토로 변할 것이다. 가난하지만 즐겁게 살다 보면 이방의 배들이 금과 바꾸기 위해 물건을 싣고 와 우리에게 팔려고 해도 우리는 돈을 낭비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물건들이야 우리도 가지게 될 테니까. 우리는 필요에 의해 산업을 일으켜 부를 나누고 안락한 생활을 누리게 될 것이다. 농부들이나 기술자들의 수가 늘고, 그래서 끝없이 결혼이 이어지겠지만 지금처럼 쓸모없이 호화로운 예식은 치르지 않을 것이다. 대자연이 오로지 아메리카에만 풍성하게 베풀어준 보물, 즉 곡물 • 목화 • 설탕 • 카카오 등은 수익성 좋은 품목으로 여러 나라들을 끌어들여 채산성 있는 무역을 활발하게 진행시킬 것이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온 세계를 하나로 묶는 상황이 연속되어 우리나라와 우리 수도를 코르테스와 피사로가 이 나라를 정복한 이래 가장 부유하고, 가장 행복하고, 경쟁자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곳으로 만들 것이다.(II-p.233-234)

멕시코의 자주성을 강조하던 작가는 드디어 독립된 멕시코를 꿈꾼다. 필리핀에서 유형생활을 마칠 때 즈음에 빼리끼요가 성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하던 대령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역시 바르게 사는 사람의 윤리의 기초이며 신성한 일이라고 설파한다. 또한 그 조국은 자기가 태어난 땅이며 그 진정한 조국(독립된 국가)은 진정한 사내대장부가 헌신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자네는 조국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 유배되었지만 조국에서 자유를 구가할 때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참 교훈을 하나 배웠다. 그것은 행운을 능가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이 교훈에 따라 처신해야 할 것이다. 자네도 이제는 명심했겠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바르게 처신하는 것임을. 진정한 조국이란 사내대장부답게 헌신할 수 있는 곳임을.(II-p.257)

> 애국심이라는 것이 일종의 선입견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애국심은 그저 해롭지 않은 선입견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갖추어야 할 윤리 덕목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태어난 장소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갖는 일은 역사가 깊은 일이다. 오래 전부터 모든 사람들에 의해 신성시되어온 생각이다.(II-p.257-258)

페르난데스 데 리사르디는 1810년 9월 15일에 소위 고통의 외침이라고 불리는 민중봉기를 언급한다. 미겔 이달고 신부에 주도된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전쟁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멕시코"를 위해 매우 정당한 전쟁임을 강조한다.

> 1810년이라는 해는 새로운 에스파냐, 그러니까 우리 멕시코로서는 진정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해였다. 공포의 시절, 범죄의 시절, 유혈의 시절, 절망의 시절!
>
> 이 전쟁의 원인, 그 과정, 그 가능한 결말에 대해 얼마나 많은 걱정들을 했던가! 아메리카의 역사를 한번 훑어보는 것은 내겐 일도 아니다. 그 서로 다투는 양편 중에 어느 편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도록 수많은 자료를 제시할 수도 있다. 에스파냐 정부가 옳은지 아니면 에스파냐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려는 아메리카인들이 옳은지를 말이다. 그러나 올해 1813년에 이것에 대해, 그것도 멕시코에서, 쓰기란 아주 위험한 것이다.

(II-p.475)

작가는 전쟁은 이성적인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며 그것도 같은 동포끼리의 싸움은 가장 큰 죄악으로 규정함으로써, 당시 멕시코에서 벌어지고 있는 독립선언과 식민정부의 탄압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유보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는 올바른 국민은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는 싸워야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독립을 위한 민중봉기를 독려하면서 새로운 국가 멕시코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 이 모든 것으로 전쟁이 얼마나 극악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이성적인 인생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 온 노력을 기울여 마땅하다. 올바른 국민이라면 국가의 안녕이 위태로울 때에만 무기를 들어야 한다.(II-p.477)

그는 소설을 민중을 계몽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공간으로 간주하고 있다(Vogeley, nancy 1987, 477-467). 물론 소설가로서 명성을 누리던 그가 인쇄출판의 완전한 자유가 선포되었을 때 다시 저널리즘으로 복귀한 것을 보면 저널리즘이 가장 효과적인 매체라고 생각한 것 같다. 그러나 소설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신념은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자신의 조국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국가주의적 프로젝트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 있는 장은 바로 사오체오푸(Saucheofú)라는 섬을 방문하는 이야기이다. 작가는 유형생활을 마치고 귀국길에 이 섬에 표류하는 데, 중국의 한 섬인 이 나라와 멕시코의 비교는 식민지 국가 멕시코의 문제를 더욱 구체화시키고 있다. 베니떼스 로호는 소설 전체를 통해 작가의 개혁프로젝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1) 권력을 향해 크리오요들이 봉기를 조장하는 정치적 개혁 프로그램
2) 귀족 부패를 척결하고 도로와 학교, 병원 등을 건설하는 공공행정 프로그램
3) 노예제도 폐지와 상업과 자본주의 트렌드에 대한 경제 프로그램으로서 상업 확충, 그리고 노동의 힘을 강조
4) 인쇄, 가정, 종교, 교육기관/ 매춘, 도적질, 알코올 중독, 도박, 문맹타파, 부랑자 등의 악을 제거하여 완벽한 국가를 형성하는 사회

프로그램(Benitez-Rojo 1999, 210)

페르난데스 데 리사르디에게 소설은 독립을 위한 투쟁의 장이었다. 독립 국가를 세우기 위한 작가의 노력은 이 국가소설에서 끝나지 않는다. 1820년 5월 31일 제정 선포된 헌법에 의해 인쇄의 자유가 허가되자 페르난데스 데 리사르디는 소설장르를 완전히 떠나 다시 저널리즘으로 복귀한다. 1820년 엘 꼰둑또르 엘렉뜨리꼬(El Conductor Eléctrico) 신문을 출간하고 다음 해에 멕시코의 독립을 위해 이뚜르비데가 봉기했을 때는 그의 군대에 참여하여 군대를 위한 간행물을 지휘한다(José Hernández Rodríguez 2007, 1). 1821년 멕시코가 독립을 한 후에도 사망시까지 멕시코의 민중계도와 사회개혁을 위한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Ⅲ. 맺는 말

이 작품은 평범하고 선한 중류가정에서 뻬드로 사르미엔또로 태어났으나 부패한 스페인 식민지말기 시대를 살아 나가기 위해 기회주의자 뻬리끼요 사르니엔또로 타락하는 과정과 다시 성실한 부르주아 계급의 뻬드로 사르미엔또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이 소설은 한 타락한 사회를 비판하고 풍자하기 위해 쓴 피카레스크 소설이 아니다. 이 소설은 프랑스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작가가 주인공의 인생을 통해 스페인 식민지사회인 누에바 에스파냐의 불의와 부조리를 고발함으로써 멕시코의 독립의 당위성을 민중들에게 획책하려는 의도를 가진 정치소설이며, 멕시코의 독립의 당위성과 독립된 멕시코사회와 국민이 나아가야 될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국가 소설이다. 그의 독립사상은 정치적 독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작품을 통하여 기존의 소설 양식을 벗어나 새로운 양식을 시도함으로서 스페인의 문학적 전통을 벗어나려고 했으며, 프랑스 계몽주의 문학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독립된 국가에 적합한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 내고자 했다. 사상의 통제와 억압이 존재하는 스페인 식민지 말기에, 문학을 통한 계몽으로서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독립을 주창하는 그의 아메리카주의자로서 고난과 부단한 노력은 멕시코 최초의 국가 소설가라는 영예를 넘어 중남미 최초의 소설을 쓴 작가라는 영광

을 수여한다.

참고문헌

곽광자(1998),「프랑스 피카레스크 소설의 발전과 특성」, 한국프랑스논집, 제 24집, pp.323-334.

권미선(2004),「라틴아메리카에서 찾아본 세르반테스의 자취- 라틴아메리카의 첫 번째 소설『엘 베리끼요』를 중심으로」, 스페인어문학, 제 31호, 여름, 스페인어문학, 한국스페인어문학회, pp.119-137.

김춘진(1995),「피카레스크 소설의 리얼리즘 정신」, 서어서문연구, vol. 7, 한국스페인어문학회. pp.83-99.

박철(1994),『서반아 문학사』, 중, 서울, 송산출판사.

엘리엇(2003),『히스패닉세계』, 서울, 새물결.

유석호(2003),「프랑스 계몽주의 시대의 사상과 문학: 사상매체로서의 문학 텍스트」, 불어불문학연구, 제 58집. pp.193-219.

까를로스 푸엔떼스(1997),『라틴아메리카의 역사』, 서성철 역, 서울, 까치.

페르난데스 데 리사르디(2001),『엘 베리끼요 사르니엔또』, 김현철 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Benitez-Rojo(1999), "José Joaquín Fernández de Lizardi and the Emergence of spanish American Novel as National Proyect", *The place of history: Regionalism revisitid in Latin America*, ed. Doris Sommer(1999), U.S.A., Duke University.

Franco, Jean(1985), *Historia de la Literatura Hispanomericana*, Barcelona, Ariel.

Goic, Cédomil(1982), "La novela hispanoamericana colonal", *Historia de la Literatura hispanoamericana*, vol. I, Madrid, Cátedra, pp.369-406.

Madrigal, Luis Iñigo(1987), *José Joaquín Fernández de Lizardi*, Historia de la Literatura Hispanoamericana, Tomo II, Madrid, Cátedra.

Jesús Hernández Rodríguez, Rafael de(2007). "Vigencia Periodística de José Joaquín Fernández de Lizardi. Siglo XIX al XXI", *El Periodismo ante*

la Realidad Socio-Politica Contemporánea. Http://www.cddiputados.gob.mx/POLEMEX/DGCS/conferencas/forop...

Ramírez cabañas, Joaquín(1998), "El Prensador Méxicano", *Lecturas históricas Mexicanas*, Tomo III, ed. Ernesto de La Torre Villar, México, 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

Sánchez Zapatero(2006), "Heterogeneidad y fuentes literarios de el Periquillo Sarniento", de José Joaquín Fernández de Lizardi, http://www.ucm.es/info/especulo/numero34/psarnien.htm

Sordo Reynaldo(2004), El diálogo en la Literatura Política de México, 1808-1832, *Revista Estudios*, No.70, Otoño.

Vasquéz, Carmen(1985), Realidad y/o ficción en El Periquillo Sarniento, *Cahiers D'etudes Romans*, 1985, Num. 10.

Vogeley, Nancy(1987), "The Concept of "the People" in *El Periquillo Sarniento*", Hispania, Vol.70, No.3, Sep., pp.477-467.

논문투고일자: 2007년 10월 25일
심사완료일자: 2007년 12월 1일
게재확정일자: 2007년 12월 10일

배지완(Bae, Ji-Wan)
고려대학교 서어서문학과
E-mail: jiwan@korea.ac.kr